

제공일자	2014. 4. 24(목)	담당자	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13 010-2394-6630	총3매

제목: 보험연구원 『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』 정책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정책 세미나에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재정 악화 및 사회복지지출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
- 첫째, 공사연금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수준이 제고되도록 공사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
- 둘째,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가입 활성화를 통해 중위소득 계층의 사적소득보장을 강화하되,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적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

□ 보험연구원은 4월 25일(금) 한국연금학회·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“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”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
- 이번 세미나는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(사적 안전망)을 제시하고, 사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.
-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소득복지 환경을 감안하여 공적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,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사적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- 주제 발표 이후 김원식 교수(건국대)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언론계, 소득,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적 안전망 역할과

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.

사적 안전망 역할 제고를 위한 사적연금의 제도 개선 절실

-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재정 악화로 사적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**제도 개선 미흡으로 사적연금이 활성화**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 - 2013년 12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대비 16.0%,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17.2%에 불과함.
 - 특히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.6%, 1,2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.3%로 이들의 경우 사적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함.
- 따라서 취약계층의 사적보장을 강화하고 중위소득계층의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적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**제도 프로세스별(제도가입, 제도운영, 연금급부) 제도개선**이 절실히 요구됨.
- **제도가입 단계**의 경우,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마련하고 속성별(직종별, 연령별)에 따른 연금세제 차등화, 다양한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음.
 -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보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의 매칭 기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
 - 또한 10인 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(특히 4인이하 사업장)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 차원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음.
 -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사적연금제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퇴직급부

제도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추가기여제도(catch up plan) 도입을 검토

- **제도운영단계**의 경우, 근로자의 투자선택폭 확대를 위해 적립금 규제방식을 질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 퇴직급여제도간의 통산성(이관성)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 보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법정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
- **연금급부단계**의 경우, 55세 이상 퇴직자의 93.8%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,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을 인정하되, 나머지 부분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부분 연금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.
 - 또한 근퇴법상의 엄격한 연금수령기준을 완화(예: 5년 이상 납입기간 & 10년 이상 연금지급)하고 장기적으로 종신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
- **강호 보험연구원장도** 이날 환영사를 통해 "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"며 "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" 고 강조하였음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